

말라가는 주암댐...저수율 '생명선' 깨졌다

5일 20% 밑으로 떨어져 식수난 우려...동북호는 이번 주 가뭄 지속 땀 5월 하순 '7% 이하'...광주 제한 급수 불가피

남도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광주·전남 상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 20%대가 붕괴됐다.

동북댐 저수율도 이번 주 내로 20%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광주·전남 주 상수원인 두 곳의 저수율이 생명선이라 여겨지는 저수율 20%대가 무너지면 식수 공급에 비상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는 5일 오전 11시 20분 주암댐 저수율이 1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저수율 30%가 붕괴된 지 2개월 만이다.

주암댐의 저수율은 지난 1년간 날마다 0.1%포인트 수준으로 감소하다 최근 0.5%포인트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20% 밑으로 내려갔다. 최근 주암 조절지점(상사호)의 저수율이 심각하게 낮아지면서 도수터널(본댐에서 조절지점으로 물을 보내 두 댐의 수위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터널)을 열어 주암 본댐에서 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관계자는 "주암조절

지점에서는 여수, 광양의 산단과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최근 가뭄이 심각해지며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수터널을 개방해 주암 본댐의 물을 조절지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주암댐은 광주시와 전남 11개 시군(여수, 광양, 목포, 순천, 나주, 고흥, 보성, 화순, 함평, 영광)에 식수를 공급하고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까지 책임지고 있다.

광주·전남 최대 광역상수원인 주암댐은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다목적댐(저수량 4억 5700만t)으로 지어져 광주 및 전남 동·서부권에 생활·공업용수 등을 연간 5억t씩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최근에는 매일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주암조절지점의 수위는 약 89m로, 1년전 같은 날에 비해 6m 정도 낮아졌다.

환경부는 교육지적으로 지난해 12월 보성강댐의 발전을 중단하고 하루 4만4000t의 물을 주암댐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주암댐은 지난해 이 시기 광주·전

남지역에 하루 평균 130만t을 공급했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1일 공급량을 102만t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저수율이 매일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암댐지사 관계자는 "주암댐은 이미 지난해 8월께 가뭄 심각 단계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며 "심각 단계에서는 생활용수 등을 20% 감량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용수를 조절하고 있다.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현재 100만t 정도 물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화순군의 동북댐도 저수율 2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5일 현재 동북댐의 저수율은 20.72%로, 저수량은 1905만이다.

하루 평균 0.13%포인트씩 감소하는 점과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 내로 저수율이 1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5월 하순께 제한급수 기준인 저수율 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동북댐 완전 고갈 시점은 7월께로 예상하고 있지만 6월 홍수기에 비가 온다면 겨울 제한급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주 상수원에 비상이 걸리면



5일 주암댐 상류인 화순군 사평면 주산리 인근 하천이 가뭄으로 바닥을 보이면서 수몰됐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여수와 광양 산단에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정비보수 일정을 앞당기고,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제한급수만은 막기 위해 시민 모두 물 절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학폭 경험' 대학생 54% "극단선택 생각"

순천대 박애리 교수팀 논문

어릴 적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도 피해를 겪지 않은 이들보다 2.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박애리 순천대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 교수 연구팀이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논문에는 연구팀이 전국 19~27세 대학생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담겼다.

논문에 따르면 대학생 34%에 해당하는 353

명이 아동기에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중 54.4%(192명)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또 13%(46명)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했다.

반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대학생 677명 가운데서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36.2%(245명),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35명)에 그쳤다.

연구팀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1.92배, 시도할 가능성이 2.55배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 뚜렷한 원인 없이 심리적인 이유로 통증이나 어지러움 등이 생기는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경찰청 '제4기동대' 창설

의무경찰 인력이 감축·폐지 됨에 따라 전남경찰청이 '제4기동대'를 창설했다.

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4기동대는 지난 3일 목포시 산정동 청사 앞에서 창설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목표로 하는 제4기동대는 의경 감축과 폐지, 대체 경찰관 총원 종합계획에 따라 기동대장을 비롯해 총 81명으로 구성됐다.

제4기동대는 기존 1~3기동대와 함께 전남도내 각종 집회와 시위 상황에 대비하고, 교통·범죄 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업무, 재난·혼잡경비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제4기동대 구성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법률·인권교육, 집회·시위 대응 훈련 등 적응 교육을 마쳤다.

이중호 전남경찰청장은 창설식에서 "제4기동대는 가장 안전한 전남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영역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 1년 연장

광주 서구, 내년 3월까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설립된 광주 서구청 임시 기구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 (이하 지원단)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광주시는 '광주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7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지원단 활동기간을 내년 3월 17일까지 연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1년짜리 한시적 기구로 민원·피해 보상, 산업·시민 재해 예방, 해체·재시공 관련 행정 조치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 등 2과 5팀으로 구성돼 있다.

서구청은 최근 화정아이파크 인근 상인들에 대한 보상, 해체·재시공 관련 행정 절차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시에 지원단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1년 연장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 8급 직원을 줄이고 행정·시설 8급 직원을 추가하는 등 사무 분장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철거 및 재시공 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지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 등 2과 5팀으로 구성돼 있다.

서구청은 최근 화정아이파크 인근 상인들에 대한 보상, 해체·재시공 관련 행정 절차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시에 지원단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1년 연장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 8급 직원을 줄이고 행정·시설 8급 직원을 추가하는 등 사무 분장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철거 및 재시공 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사거리 우회 하세요... 내일 지하철 횡단공사

5월 31일까지 복공판 설치 등

광주시도시시설건설본부는 "7일부터 조선대학교 사거리 횡단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조선대학교 치대병원 앞 구간과 조선대 공과대학 앞 구간을 잇는 교차로 횡단공사로, 7일 부터 5월 31일까지 2단계에 걸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가시설 설치작업 및 복공판을 설치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조선대 사

거리 공사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유도 안내 표지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안내 요원 등을 배치한다.

특히 조선대 정문 주변은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구간 진입 전 인근 교차로 등에 공사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사구간을 안내하고 교통방송 안내를 통해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 봄 미세먼지 잦다

중국 석탄발전소 무더기 허가 광주 '주의보'만 벌써 4차례

올 봄에는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자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에 따라 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도 올 봄 동아시아 지역 고기압성 흐름이 상대적으로 우세해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6회(미세먼지 4회, 초미세먼지 2회), 경보가 1회였지만 올해는 2월 말까지 벌써 4회(미세먼지 1회, 초미세먼지 3회)가 발령됐다.

광주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올해 1월 47 $\mu\text{g}/\text{m}^3$ 로 지난해 1월 평균 농도(32 $\mu\text{g}/\text{m}^3$)보다 높았고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3월(38 $\mu\text{g}/\text{m}^3$)보다 나빴다.

전문가들은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된데다 겨울철 난방을 위한 중국 발전 설비 난방이 본격화 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지난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무더기로 허가해 올 봄 미세먼지는 햇수와 농도면에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